



도장을 찍어보세요

2012-2013년 겨울(12-2월) 프로그램

● 생태학교

프로그램명	인원	요일	운영시간	대상자	12월	1월	2월
토요생태학교	30명	토	11:00	누구나	○	○	○
일요가족나들이	30명	일	14:00	누구나	○	○	○
숲유치원	30명	목	10:30~12:00	7세 이하	○	○	○
열린 생태학교	10명이상	아무때나	10:00~18:00	누구나	○	○	○

● 관찰 & 체험교실

길동 조류관찰	15명	화·토	16:00	초교이상	○	○	○
신나는 겨울, 행복한 생태놀이	30명	토	11:00	6세 이상	○	○	○

● 문화센터

자연창의교실	20명	토	15:00~16:30	초교이상	○	○	
한지로 만드는 연하장	20명	수	15:00~16:30	초교이상	○	○	
자연물공방	20명	금	15:30~17:00	6세 이상	○	○	○

● 특별프로그램

청소년 방학특집-곤충들의 겨울나기	30명	토	10:00	초교이상	○		
입춘방 쓰기	30명	토	10:00	6세 이상		○	

* 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공원이용안내

1. 공원에 오실 때는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하셔야 합니다.(단체이용은 따로 문의)
2. 입장시간 | 길동생태공원 10:00~16:00 길동생태문화센터 10:00~17:00
3. 공원의 생물서식처 보호 및 공원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.
4. 공원 안에서는 정해진 산책로로 다니시고, 비온 후 나무데크가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.
5. 길동생태공원은 야생동물보호를 위해 음식물 반입을 금지 합니다.

*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공원에 오실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.
(주차장은 길동생태공원 맞은편 길동생태문화센터에 있습니다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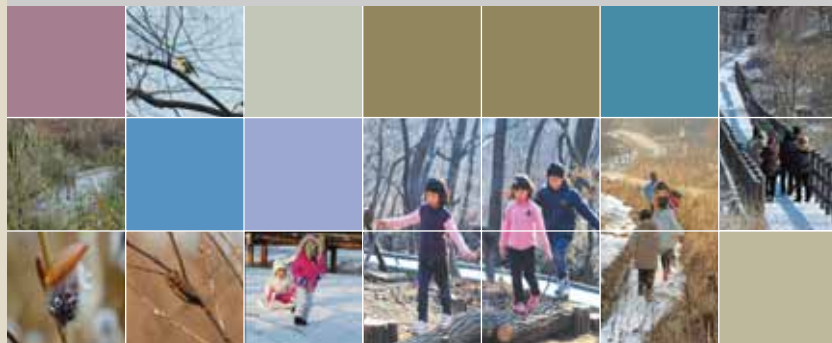


길동생태공원
Gildong Ecological Park

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291(길동 18-3)
<http://parks.seoul.go.kr>
전화 : 472-2770, FAX : 472-2179

2012~13 길동생태공원

겨울 冬



Gildong Ecological Park
면적 80,683m² 개원 1999년 5월



서울특별시



습지지구

습지지구는 땅속에서 끌어올린 지하수가 수로를 통해 이동하면서 물웅덩이, 수로, 갈대밭을 만들어 습지와 관련된 다양한 생물들이 생태적으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성된 곳입니다.



산림지구

숲의 천이과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라는 참나무 숲과 오래전 심어진 아까시나무숲이 아래로 키작은 나무와 풀들이 어우러져 안정된 숲이 되어가고 있으며 그 안에서 다양한 동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곳입니다.



농촌 & 초지지구

농촌지구는 논과 밭에 계절별 향토 작물을 재배하는 곳입니다.
초지지구는 자연상태 그대로 두어 식물이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.



저수지지구

공원 전체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물 저장시설로 물과 관련된 생물, 특히, 어류와 조류가 활동하고 번식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입니다. 물가 주변에 보호막을 설치하여 물가에 오는 새들이 번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



겨울은 겨우겨우 견뎌낸다고 겨울이라고 했었다. 그래서 겨울은 추위에 싸워 견뎌야 하는 혹독한 계절 같았다. 이 추위를 견뎌내는 동 · 식물들이 힘겨워보였다.



❦ 봄까지 무사하렘, 왕사마귀 알집



❦ 누가 먹어주려나, 화살나무열매



❦ 물명나방 애벌레는 어디갔을까?



❦ 겨울잠을 자지 않는 창설모



❦ 매미나방 알집은 엄마 털속에



❦ 때까지 먹잇감이 된 개구리



❦ 서리맞는 철쭉



❦ 눈이와도 푸르른 꽃창포



그러나 요즘은 겨울은 쉬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. 우리가 매일 잠을 잘 자야 내일을 거뜰히 준비하듯 자연도 한겨울을 충분히 쉬면서 봄을 준비한다. 그래서 자는 겨울 숲에 들어가면 잠자리에 들듯 아늑하고 평화롭다.



❦ 씨앗을 날리는 부들



❦ 산수유 붉은 알알이



❦ 다리를 건너 숲으로



❦ 이제 빈 집, 뱀새둥지



❦ 나도 빈 집, 말벌집



❦ 거미줄만 남아



❦ 엄마 민새똥거미는 어디갔을까?



❦ 물 먹는 까치들



날씨는 매섭지만 이제 일어난 시간이다. 땅속 씨앗들은 조금씩 꿈틀내고, 나무도 겨울눈을 키운다. 잠을 자던 동물들은 슬슬 일어날 채비를 한다. 일어나~~ 아름다운 연두빛 잔치를 벌일 시간이다.



❦ 봄을 기다리는 직박구리



❦ 겨울에만 먹이를 줘, 곤줄박이



❦ 날이 따뜻하면 노래하는 노랑턱멧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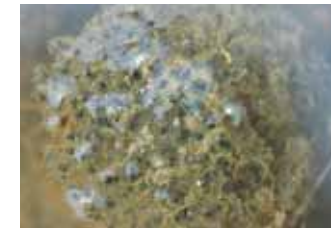
❦ 침엽수에서만 보이는 상모술새



❦ 떼도 다니며 열매를 먹는 물까치



❦ 집지를 재료를 모으는 까치



❦ 조금 일찍 낳은 한국산개구리 알덩어리



❦ 꽃처럼 아름다운 달맞이 로제트



공원에는 겨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간다. 발자국만 남기고, 자연의 생명력과 행복한 추억을 담아간다.



❦ 새싹생태체험



❦ 청소년생태학교



❦ 자연물공방



❦ 스스로관찰



❦ 행복한 자연놀이



❦ 조류관찰교실



❦ 인공새집 조사중



❦ 일하는 아저씨